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2008년 여성회 기금마련 만찬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 ‘세대를 이어서 Bridging Generations’ 라는 주제로 2008년 기금모금 행사를 2월 23일 토요일 개최합니다. 이행사는 여성회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기금모금 행사이며, 건강한 가정과 성공적인 캐나다정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쓰여집니다.

이날에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디자이너들의 패션과 보석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며, 참석하신 분들은 출품된 옷과 독특한 보석작품을 구입하실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이 쇼케이스는 2008년 여성회 운영기금마련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우리 한국디자이너들의 재능을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것입니다. 그 밖에 라이브 쇼, 무성 경매, 추첨을 통한 놀라운 상품을 받으실 기회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인여성회 이사회를 대표하여, 회원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티켓은 \$100이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풀코스 저녁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새로 단장된 Sheraton Parkway Hotel (600 Highway 7 East, Richmond Hill) 이며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티켓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여성회 사무실로 (416-340-1234)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게일 이

기금모금행사 담당및 여성회 재정위원

KCWA Annual Fundraising Gala 2008

"Bridging Generations"

일시: 2008년 2월 23일(토) 오후 6:30

장소: Sheraton Parkway Hotel
(600 Highway 7 East, Richmond Hill)

“한인 디자이너들의 패션 쇼”

문의전화 : 416-340-1234

차 례

1면	기금마련 행사 초대글
2면	직원 단상
3면	여성회 소식
4면	한인 여성회 취업 프로그램 2008년 행사
5면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특별 프로젝트
6~8면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9면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10면	기부금/자원봉사 Funders

직원 단상 I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2007년의 모래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의 완성작이 되었습니다. 어언 10년이란 세월을 보낸 이 민생활이 해 마다 다른 색깔들로 제 마음속에 장식되어 있지만, 작년은 유난히 여러가지 색깔을 그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렸던 초록 빛깔은 새로운 해의 원동력과 제 의식속에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의욕으로 ‘한인 여성회’의 울타리속에 저를 살그머니 밀어넣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낮선 이국땅에 첫 발을 내 딛으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한 걸음씩 살금살금 걸어갔던 순간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그 시간들은 새로운 문화와 공간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창조와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의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철칙’에 충실했던 순간들을 되 돌아 보며 ‘한인 여성회’의 한 가족으로 최선을 다할 마음의 각오를 다시금 해 봅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꿈꾸는 모든 이민자 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씨앗이 새싹을 틔게하고, 새싹이 자라서 묘목이 되고, 묘목의 뿌리가 땅 속 깊이 자리잡을 때까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힘을 이민자들의 새로운 자리매김에 부어넣어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정착 아웃리치 워커 심 수 영

직원 단상 II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한인 여성회로부터 인터뷰 연락을 받았을 때와 새해 1월 3일 정착 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 생각납니다. 어려서 부터 기뻐서 울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의 기쁨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남을 도우는 일에 저의 열정과 경험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던 차 한인 여성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 채용소식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며 한인 여성회에 평소 갖고 있던 좋은 이미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이민자를 위한 커뮤니티의 정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프로 정신으로 일하는 많은 정착 상담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유용한 정보,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가 되어 서비스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착상담원이라는 타이틀로 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배워야 할 많은 일들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인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너 나아가 바람직한 한인 문화를 만드는 일이기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기쁜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씨앗으로 심고 싶습니다.

저는 일의 기쁨을 “한인 2세들에게 비빌 언덕을 만드는 것”에서 찾고 거기에 모래 한 줌이라도 쌓을 수 있다면 지금의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납니다. 선한 마음과 능력을 모두 갖춘 우리 한인여성회의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신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정착 상담원 이 진 영

여성회 소식

◆ 자원봉사자 & 미디어 감사의 날

12월 14일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과 미디어 감사의 날’ 행사가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여성회의 프로그램, 행사, 업무지원 등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시어 봉사활동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알리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각 미디어의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하영리 사무장의 여성회 2007년도 서비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커뮤니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협력을 다짐하였다.



◆ 지난 2007년 11월 부터 이민성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직원이 4명 더 증가 하여 현재 12명의 직원이 여성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2008년 2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북쪽에 거주하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H Mart에서 이동서비스를 시작한다.

◆ 2008년 1월 11, 12일 직원 트레이닝과 2008년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가졌다.



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원(1년/평생)이나 기부자로 여성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회 소식

◆ 자원봉사자 & 미디어 감사의 날

12월 14일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과 미디어 감사의 날’ 행사가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여성회의 프로그램, 행사, 업무지원 등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시어 봉사활동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알리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각 미디어의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하영리 사무장의 여성회 2007년도 서비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커뮤니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협력을 다짐하였다.



◆ 지난 2007년 11월 부터 이민성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직원이 4명 더 증가 하여 현재 12명의 직원이 여성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2008년 2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북쪽에 거주하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H Mart에서 이동서비스를 시작한다.

◆ 2008년 1월 11, 12일 직원 트레이닝과 2008년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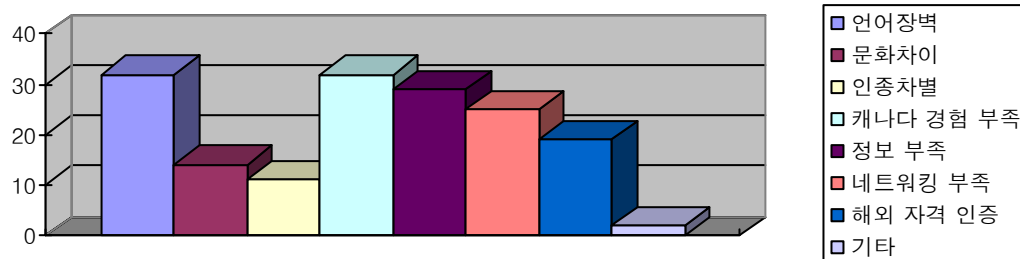
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원(1년/평생)이나 기부자로 여성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 여성회 취업 프로그램 2008년 행사

한인여성회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지난 해 실시되었던 한인 기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선을 보입니다.

다음은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의 장애 요소에 대한 도표입니다.



위의 도표에 나타났듯이 한인들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생각하는 점이 크게 언어와 캐나다 경험의 부족 및 정보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인여성회에서는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보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영어교실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취업 영어 교실 Career English Café를 진행합니다. 취업 영어 교실을 통해서 직장생활에서 실재 사용하는 영어대화를 배워봄과 동시에 최근 이민자들의 취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사나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교실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Speaking Club입니다. 스피킹 클럽은 영어로 Public Speaking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캐나다의 학교나 직장에서는 종종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실전 연습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과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JOB FINDING CLUB “취업 찾기 클럽”이 있습니다. 정보와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설문 조사 결과 다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네트워킹의 경우 이민자 개인이 노력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에 더욱이 한인여성회와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1월 24일 저녁 6시에 첫 모임을 갖을 이번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찾는 구직자들과 현재 일을 하고 계신 취업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세미나 위주보다는 서로 모여 정보 공유, 친목 도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 선배들의 많은 참여가 요청됩니다.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취업 선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여성회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오병천 취업 상담원(employment@kcwa.net)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착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원고를 여성회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한인여성회 416-340-1234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특별 프로젝트

한인여성회는 건강한 한인동포 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3개의 프로젝트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건강한 가정 지킴이-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손에 손잡고-유방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roject 1.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Raising Sexually Healthy Children) - 부모 Workshop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성에 관해 대화를 함으로써 혼란스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성에 대한 가정의 문화와 가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올바른 성 가치관을 자녀들이 갖도록 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와 Toronto Public Health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부모를 위한 워크숍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프로젝트는 Ontario Trillium Foundation에서 재정 지원을 합니다.

- Workshop 1 : 성이란 무엇인가? / 아이들과 성 / 대화법 I message/ 가족의 기원 / 아이들은 어디서 성에 대해 배우는가?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부모의 역할
- Workshop 2 : 어린 아이들의 성 발달 / 아이들의 행동이 걱정을 불러 올 때 / 사람들로 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 성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워크숍은 각 3시간 씩 총 6시간)

Project 2.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Project) - '건강한 가정 지킴이' 커뮤니티 워크숍

한인 여성회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장애 요소를 줄이고 힘든 상황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건강한 가정 지킴이-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부족,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커뮤니티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워크숍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무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Ontario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종교단체, 기관, 개인 모두 환영합니다.)

- Workshop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 Workshop 2: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Workshop 3: 가정폭력과 캐나다 법
- Workshop 4: 안전계획과 관련기관 정보
(♣워크숍의 세션 수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 가능합니다.)

Project 3. '손에 손 잡고' - 유방건강증진 프로젝트 (Breast Health Promotion Project) - '커뮤니티 워크숍'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Canadian Breast Health Foundation의 후원으로 유방암 없는 미래를 위하여 유방 건강 증진 워크숍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실시합니다. 워크숍은 무료이며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Workshop 1: *유방암 위험요인, 건강한 식생활, 신체활동,
- Workshop 2: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자가 검진, OBSP 프로그램 및 mobile Health Clinic 소개,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워크숍은 각 3시간 씩 총 6시간)

♣ 워크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각 프로젝트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전화: 416-340-1234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settlement@kcwa.net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dvc@kcwa.net

유방건강증진 프로젝트: health1@kcwa.net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특별 프로젝트

한인여성회는 건강한 한인동포 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3개의 프로젝트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건강한 가정 지킴이-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손에 손잡고-유방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roject 1.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Raising Sexually Healthy Children) - 부모 Workshop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성에 관해 대화를 함으로써 혼란스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성에 대한 가정의 문화와 가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올바른 성 가치관을 자녀들이 갖도록 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와 Toronto Public Health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부모를 위한 워크숍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프로젝트는 Ontario Trillium Foundation에서 재정지원을 합니다.

- Workshop 1 : 성이란 무엇인가? / 아이들과 성 / 대화법 I message/ 가족의 기원 / 아이들은 어디서 성에 대해 배우는가?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부모의 역할
- Workshop 2 : 어린 아이들의 성 발달 / 아이들의 행동이 걱정을 불러 올 때 / 사람들로 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 / 성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워크숍은 각 3시간 씩 총 6시간)

Project 2.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Project) - '건강한 가정 지킴이' 커뮤니티 워크숍

한인 여성회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장애 요소를 줄이고 힘든 상황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건강한 가정 지킴이-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부족,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커뮤니티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워크숍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무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Ontario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종교단체, 기관, 개인 모두 환영합니다.)

- Workshop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 Workshop 2: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Workshop 3: 가정폭력과 캐나다 법
- Workshop 4: 안전계획과 관련기관 정보
(♣워크숍의 세션 수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 가능합니다.)

Project 3. '손에 손 잡고' - 유방건강증진 프로젝트 (Breast Health Promotion Project) - '커뮤니티 워크숍'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Canadian Breast Health Foundation의 후원으로 유방암 없는 미래를 위하여 유방 건강 증진 워크숍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실시합니다. 워크숍은 무료이며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Workshop 1: *유방암 위험요인, 건강한 식생활, 신체활동,
- Workshop 2: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자가 검진, OBSP 프로그램 및 mobile Health Clinic 소개,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워크숍은 각 3시간 씩 총 6시간)

♣ 워크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각 프로젝트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전화: 416-340-1234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settlement@kcwa.net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dvc@kcwa.net

유방건강증진 프로젝트: health1@kcwa.net

주요행사

♣ 캐나다 문화 이해를 위한 Thanksgiving Day 요리

이민가정의 캐나다 문화 이해를 위한 Thanksgiving Day Turkey 요리강좌가 10월 1일 있었다. 터키 구입과 요리를 위한 준비과정까지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Thanksgiving Day 디너준비를 위한 터키요리 굵기를 시연하였다.

♣ 제1회 '그리며 생각하며' 성인 미술반 전시회

'그리며 생각하며' 성인 미술교실은 10월 9일-12일 까지 제1회 미술전시회를 토론토 총영사관 갤러리에서 가졌다. 전시회를 통하여 여성회의 미술교실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전시회를 관람한 회원 가족, 동포여러분들께서 격려와 아울러 예술적 성취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성인 미술교실은 이민 한인 동포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이민생활의 활력을 갖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SL Toronto Guide

정착도모를 위한 토론토 지역문화 이해를 위한 영어로 공부하는 토론토 가이드는 토론토 지역내에 있는 특별지역에 대한 정보와 아울러 현장견학을 함으로써 토론토 정착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아울러 자신감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English Café

고급영어 English Café 프로그램이 10-12월 Metro 신문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일의 시사 뉴스를 접하면서 다양한 대화의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회화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 자원봉사 활동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11월과 12월에는 보다 활발한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두달에 걸쳐 총11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서 올 한해 보다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었다. 2008년에는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통해 캐나다 사회 복지 서비스 이해와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을 하였으면 한다.

♣ 국적 설명회

이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의 국적업무관련 설명회가 토론토 총영사관의 지원으로 10월 24일 있었다. 설명회를 통하여 국적상실신고 및 상실신고후 국내거소 절차, 외국국적 포기후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는 국적회복 절차, 출입국 관리법상 출입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과 아울러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 병무 행정 설명회

이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역 관련 궁금한 사항을 위하여 병무 행정에 관한 설명회가 11월 16일 한인 여성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기회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자의 병역 의무, 국외 이주자의 병역 의무,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신국적법 관련 안내, 모국수학제도,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국민편의를 위한 병역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 타민족 식문화 배우기 I & II

2007년도크리스마스를 맞이 하여, 타민족 식문화를 배워서 주위에 친구 또는 친지들에게 손수 만든 쿠키와 케익을 선물할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부터 선물 포장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 타민족 식문화 배우기 I 과 II 는 크리스마스 쿠키 및 케익 그리고 커피 쿠키와 헤이즐넛 케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인 이민 여성들이 타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 '뜨사모-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 12월 시작

2007년 1-3월에 뜨개질교실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의 후속 모임인 '뜨사모'가 여름동안 휴식기간을 가진 후 12월 다시 모임을 시작하였다. 뜨사모는 뜨개질을 배우면서 함께 정착의 어려움, 경험등을 나누면서 고립감 감소와 아울러 뜨개질 기술을 함께 나누며, 수업을 통하여 뜨개질 기초부터 다양한 패턴의 옷을 짤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007년 12월-2008년 2월 까지 진행되며 이후 자율적인 모임이 계속된다.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프로젝트 부모 워크숍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모 워크숍이 동료부모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인여성회에서 10월 24일과 11월 7일, 이토비코 에서 11월 16, 20일, 예수성심 천주교회에서 11월 24일, 28일 실시되었다. 워크숍을 통하여 부모님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I message', 부모의 역할, 어린이들의 발달 외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실습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7개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부터 3년 계획 프로젝트로 Toronto Public Health, ACAS(Asian Community AIDS Services)의 협력과 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워크숍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여성회 프로젝트 담당코디네이터에게 전화 416-340-1234 로 등록하시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일 시 : 1월 23일, 30일 (수요일) 10:00 -1:00
장 소 : Newcomer Resource Centre-Polycultural Immigrant and Community Services
2225 Erin Mills Pkwy. Mississauga
2. 일 시 : 2월 10일, 17일 (일요일) 2:00-5:00
장 소: 가든교회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3. 일 시: 3월 2일, 9일 (일요일) 12:30-3:00
장 소: 예수성심천주교회
296 Judson St. Etobicoke

♣ 타민족 식문화 배우기 I & II

2007년도크리스마스를 맞이 하여, 타민족 식문화를 배우서 주위에 친구 또는 친지들에게 손수 만든 쿠키와 케익을 선물할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부터 선물 포장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 타민족 식문화 배우기 I 과 II 는 크리스마스 쿠키 및 케익 그리고 커피 쿠키와 헤이즐넛 케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인 이민 여성들이 타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 ‘뜨사모-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 12월 시작

2007년 1-3월에 뜨개질교실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의 후속 모임인 ‘뜨사모’가 여름동안 휴식기간을 가진 후 12월 다시 모임을 시작하였다. 뜨사모는 뜨개질을 배우면서 함께 정착의 어려움, 경험등을 나누면서 고립감 감소와 아울러 뜨개질 기술을 함께 나누며, 수업을 통하여 뜨개질 기초부터 다양한 패턴의 옷을 짤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007년 12월-2008년 2월 까지 진행되며 이후 자율적인 모임이 계속된다.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프로젝트 부모 워크숍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모 워크숍이 동료부모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인여성회에서 10월 24일과 11월 7일, 이토비코 에서 11월 16, 20일, 예수성심 천주교회에서 11월 24일, 28일 실시되었다. 워크숍을 통하여 부모님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I message’, 부모의 역할, 어린아이들의 발달 외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실습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7개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부터 3년 계획 프로젝트로 Toronto Public Health, ACAS(Asian Community AIDS Services)의 협력과 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워크숍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여성회 프로젝트 담당코디네이터에게 전화 416-340-1234 로 등록하시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일 시 : 1월 23일, 30일 (수요일) 10:00 -1:00
장 소 : Newcomer Resource Centre-Polycultural Immigrant and Community Services
2225 Erin Mills Pkwy. Mississauga
2. 일 시 : 2월 10일, 17일 (일요일) 2:00-5:00
장 소: 가든교회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3. 일 시: 3월 2일, 9일 (일요일) 12:30-3:00
장 소: 예수성심천주교회
296 Judson St. Etobicoke

주요행사

♣ 건강한 가정 지킴이

워크숍 및 2기 동료 지도자 훈련

‘건강한 가정 지킴이-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커뮤니티 일반, 학교 정착 상담원, 법정 통역사 등을 대상으로 세번의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시간의 훈련을 통해 14명의 2기 동료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지난 7월에 완성되었던 워크숍 매뉴얼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후, 훈련을 마친 동료 지도자들에게 배포되었다.

♣ 다문화가정 모임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조성을 돕기 위하여 형성된 이 모임은 두달에 한번씩 KCWA 에서 열리고 있다. 매번 모임 때마다 워크숍, 토론, 가정에서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비롯된 경험담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엔 부부 파트너와 함께하는 가족모임을 가졌는데 각자 집에서 마련해 온 음식으로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모임은 2008년 2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7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 2007년 12월 셀프헬프 그룹회원들 연말모임

매달 셋째 금요일에 열리고 있는 셀프헬프 그룹 모임이 지난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렸다. 어린이 및 자원봉사자 포함 총 22명이 참석한 그룹 모임에서는 뜻깊은 한해를 마감하는 장이 되었다.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 행복한 가족관계 만들기 워크숍

10월에 4주에 걸쳐서 부부/파트너와의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워크숍이 있었다.

11월 28일 분노 조절 워크숍을 열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다.

12월 12일 매월 있을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첫 모임을 가졌다.

♣ ‘손에 손잡고’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 워크숍 및 1기 동료 지도자 훈련

한인 여성회에서는 유방암 없는 미래를 위한 ‘손에 손잡고’ -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료 지도자 훈련을 지난 2007년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 20시간의 훈련을 가졌다. 이기간의 훈련을 통해 동료 지도자들은 건강한 식습관, 유방 자가 검진 등 여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 유방암 환우 지원 그룹

‘손에 손잡고’ -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방암 환우의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환우 그룹 지원 모임이 2007년 12월 시작되었고, 매주 월요일 10:00-12:00에 모임이 있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건강한 가정 지킴이-가정폭력예방 프로젝트 1기 동료지도자 조연익

2006년 7월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한인 여성회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1기 동료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들의 가정에만 있는 문제 정도인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 가정 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할 때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가 힘들어 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민 가정의 경우 정착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가정폭력이 발생할 위험도가 더욱 높다. 가정폭력은 한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한인 여성회에서도 온타리오 법무부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동료 지도자로서 한인여성회의, 특히 김민경 가정폭력 예방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워크샵을 진행했을 때는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건강한 가정지킴이 동료지도자로 설 때마다 아픈 가정들의 마음을 느낄때 가슴 속에서 뭉클해지며 진한 눈물이 나왔다.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주시려고 참여하신 그룹들, 학교정착을 도와주시는 settlement 선생님들, 법정통역사님들, 이분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는 분들로서 가정 폭력 예방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표현해 주셨다.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님을 알고, 또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부부 각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워크샵에 동참할 때 가정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내 가정이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다고 이웃에 무관심할 때 우리의 이웃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물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바로서야 한다. 2008년도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 워크샵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II

‘손에 손잡고’ - 유방건강증진 프로젝트 1기 동료지도자 최명숙 카타리나

여느때 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도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그중에서도 지인들이 유방암으로 한창 나이에 가족과 친지들을 남겨두고 떠나 가신것이 지금도 가슴 한켠을 시리게 한다. 가까운 이웃이 유방암 수술과 약물치료로 힘들어 할때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새어 나오는 한숨과 함께 그저 바라 보아야 했던 안타까움...

하지만 이번 한인 여성회에서 주관한 ‘손에 손잡고’-유방 건강증진 동료 지도자 훈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한인들의 좋지 않은 습성과 힘든 이민 생활에서 오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의 일과 때문에 이곳의 잘 짜여진 의료복지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 버리고 각종 암에 걸리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내용과 활발한 토론을 나누면서 전문적인 유방암 관련 의학 지식은 물론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과 정기적인 검진외에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검진 방법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더불어 배운 지식들을 친지와 이웃들과 함께 나눌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까지 충전시켜 주신 두분의 코디네이터와 여성회 임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앞으로 건강한 유방을 지키기 위한 홍보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지푸라기가 되어 보려고 한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건강한 가정 지킴이-가정폭력예방 프로젝트 1기 동료지도자 조연익

2006년 7월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한인 여성회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1기 동료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들의 가정에만 있는 문제 정도인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 가정 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할 때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가 힘들어 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민 가정의 경우 정착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가정폭력이 발생할 위험도가 더욱 높다. 가정폭력은 한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한인 여성회에서도 온타리오 법무부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동료 지도자로서 한인여성회의, 특히 김민경 가정폭력 예방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워크샵을 진행했을 때는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건강한 가정지킴이 동료지도자로 설 때마다 아픈 가정들의 마음을 느낄때 가슴 속에서 뭉클해지며 진한 눈물이 나왔다.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주시려고 참여하신 그룹들, 학교정착을 도와주시는 settlement 선생님들, 법정통역사님들, 이분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는 분들로서 가정 폭력 예방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표현해 주셨다.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님을 알고, 또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부부 각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워크샵에 동참할 때 가정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내 가정이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다고 이웃에 무관심할 때 우리의 이웃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물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바로서야 한다. 2008년도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 워크샵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II

‘손에 손잡고’ - 유방건강증진 프로젝트 1기 동료지도자 최명숙 카타리나

어느때 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도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그중에서도 지인들이 유방암으로 한창 나이에 가족과 친지들을 남겨두고 떠나 가신것이 지금도 가슴 한켠을 시리게 한다. 가까운 이웃이 유방암 수술과 약물치료로 힘들어 할때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새어 나오는 한숨과 함께 그저 바라 보아야 했던 안타까움...

하지만 이번 한인 여성회에서 주관한 ‘손에 손잡고’-유방 건강증진 동료 지도자 훈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한인들의 좋지 않은 습성과 힘든 이민 생활에서 오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의 일과 때문에 이곳의 잘 짜여진 의료복지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 버리고 각종 암에 걸리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내용과 활발한 토론을 나누면서 전문적인 유방암 관련 의학 지식은 물론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과 정기적인 검진외에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검진 방법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더불어 배운 지식들을 친지와 이웃들과 함께 나눌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까지 충전시켜 주신 두분의 코디네이터와 여성회 임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앞으로 건강한 유방을 지키기 위한 홍보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지푸라기가 되어 보려고 한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건강한 가정 지키기-가정폭력예방 프로젝트 1기 동료지도자 김 미혜

헛 나이 지천명을 지나 반백의 삶을 뒤돌아 보니 지난 세월은 실수와 후회의 연속이었다. 이제 더는 자책하지만은 않으리라 다짐하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애쓰려는 가운데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참여한 KCWA Family & Social Services의 워크샵과 세미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제공하는 동시에 동료 지도자들과 많은 한인 부모들을 만나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먼저, "Raising Sexually Healthy Children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자라온 환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성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교육만이 남, 여 차이에에서 오는 다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구축하고 성에 대한 무지함이 빚어내는 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지난해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는 가정 학교 사회의 균형잡힌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의 시간을 가지게 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훈련의 중요성과 학습화된 행동인 폭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세습되어질 수 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해 악순환의 되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정교육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두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준비하며 배운것들은 실로 나 개인의 발전에도 큰 도움과 자양분이 되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토록 절실히 필요한 교육의 현장이 누구나에게 제공되는데 바쁜 이민 생활로 많은 이들이 나누지 못하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덧붙여 너무도 중요한 이런 교육의 자리를 제공해주신 Toronto Public Health와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한다.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

2007년 10월~2007년 12월까지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회원, 후원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장을 위하여 한분한분의 성함을 기록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UNDED BY:



Ontario

THE ONTARIO
TRILLIUM
FOUNDATION



LA FONDATION
TRILLIUM
DE L'ONTARIO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Bank
Financial
Group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FONDATION
CANADIENNE DU
CANCER DU SEI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toyenneté et
Immigration Canada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